

2차 가짜정상화 저지 선전전 이어져

현장 투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역량 집중

■ 한전KPS노조, 전력노조 지부별 조합원 선전전 시행



2차 가짜정상화 대책 분쇄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의 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연맹의 투쟁 지침에 따라 회원조합 지부별 출근 선전전이 각지에서 활기차게 이어졌다. 한전 KPS노조(위원장 박명철)는 본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투쟁특보를 배포하며 현장 투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으며, 전력노조 경남지부(위원장 김민영)·경남전력지부(위원장 이법림)와 강원지부(위원장 조병선), 대구전력지부(위원장 최창영), 전북지부(위원장 최홍철)는 각기 출퇴근 선전전, 중식선전전, 순회설명회 등을 시행했다.

■ LH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집행부 전국 순회 설명회 계속



LH노조(위원장 박해철)도 16일 경기, 인천지역의 광명·시흥사업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 고양사업본부, 파주사업본부를 방문해 조합원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영우)는 지난주 수도권과 본사 설명회에 이어 금주에는 전북과 전남, 충청과 강원 본부를 방문해 순회설명회를 갖는다.